

중풍의 원인과 증상

중풍은 40대 이상 장, 노년층이 가장 무서워하는 성인병으로 우리나라 노인층의 사망원인중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 중풍은 원인과 증세 및 치료법을 알아본다. 중풍에 한번 걸리면 못고치는 난치병으로 잘못생각하여 치료를 포기해서 폐인으로 몇년을 지내다가 숨지는 경우가 많으나 그릇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처음에 올바른 진단을 받아 꾸준하게 치료만 계속한다면 40%정도는 완전히 치료, 새가람으로 사회에 나가 다시 활동 할 수 있다.

중풍은 뇌졸중(腦卒中)을 말한다. 뇌빈혈 뇌혈전(腦血栓), 뇌전색(腦栓塞)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을 합해서 부른다. 지난 6개월 동안 (73.5~10) 중풍재활(센터)에 입원한 2백 33명의 중풍환자를 대상으로 중풍의 원인을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고혈압때문에 이병이 생긴 환자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7.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심장병(27%) 동맥경화증(15.9%) 당뇨병(13.7%) 저혈압(5.6

%) 신장병(1.7%) 매독(0.4%) 원인 미상(1.7%) 순위이고 남성(60%)이 여성(40%)보다 많이 발생한다.

뇌혈관 막혀 마비

<중세>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뇌동맥의 일부가 막혀서 그 동맥이 관류 하고 있는 뇌 조직의 빈혈과 괴사(壞死)로 말미암아 뇌의 기능이 마비된다. 뇌의 중심부에 들어가는 거미줄 모양의 가느다란 혈관이나 큰혈관이 막혀서 팔다리의 편마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제 오른쪽 혈관이 막히면 왼쪽 팔다리에 마비증세가 생기고 왼쪽이던 반대로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일어난다.

뇌혈관이 막혀 마비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팔다리가 이유없이 저리고 시큰 시큰 아파서 신경통으로 오인하는 전구증상(前驅症狀)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온몸에 힘이 없고 어지러운 현기증이나 두통을 호소하게 된다. 이증세가 없어지면 갑자기 졸도하거나 의식을 잃게 된다. 졸도에서 깨어나면 팔다리에 편마비가 온다.